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解脫知見에 대해

'참 앎(知)'과 '참 봄(見)'은 깨달음의 완성을 의미한다. 예불문(禮佛文)에서 해탈지견(解脫知見)은 계(戒), 정(定), 혜(慧), 해탈(解脫)의 완벽한 충만을, 완성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참 앎과 참 봄을 이룬 자는 헤매거나 헐떡이지 않는다. 머뭇거리거나 망설이지 않는다. 꾸밈이 있거나 돋보이려 드러내지 않는다. 있으면 있는 대로 고마워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받아들이며 감사히 만족하며 당당하면서도 넉넉하다.

집착이 모든 병의 원인임을 살펴 열고 닫음이 자유롭다. 작은 일에도 소홀함이 없이 걸림이 없이 오고가나 나누는 기쁨을 생활화한다.

행복은 만족에서 비롯되고 불행은 견줌의 버릇에서 시작된다. 소유욕은 키울수록 병이 되고 욕심은 버릴수록 편안하다. 몸과 마음이 분주하면 탈이나 재앙을 부르고 생각과 행동이 단순하면 느긋해 단잠을 이룰 수 있는 법이다.

입으로는 막힘이 없는 자유와 다함이 없는 행복을 노래 부르지만 낮과 밤의 행동이 같지 않다면 그는 허명(虛名) 허세(虛勢)의 생각의 윤회를 거듭하는 '업덩이' 중생일 따름이다.

실천이 따르지 않는 설법에는 메아리는 커녕 중생들의 번뇌만 깊게 할 뿐이다. 명예를 앞세우며 돈과 세력 키우는 일에 머물러 있다면 그는 이름이 수행자 일뿐 진정한 의미의 수행자는 아닐 터이다.

버리지 못하고 비우지 못하고 나누는 일에까지 인색하다면 그는 얼간이요 머저리 등신이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떠나는 것, 홀로 와서 홀로 떠나는 것, 챙기고 모으는 것 없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고맙고 감사하고 미안한, 기쁨 충만의 날마다 좋은 날이 되는 것이다.

드러내고 감출 것 없는, 궁금한 의혹이 남아있지 않는, 순수함과 진솔함 그대로 발길 닿는 곳이 정토(淨土)가 되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인, 행복인이 되는 것이다. 해탈지견(解脫知見)은 깨달음의 완성을 의미한다. '생활이 도(生活是道)'요 '마음이 부처(心卽是佛)'이기 때문이다.

거짓보다는 진실하게, 꾸밈보다는 진솔하게, 마음 편하게, 부담스럽지 않게, 방편 쪽으로만 치닫지 말고 열린 진리의 세계를 펼쳐 보여야 한다. 진리는 숨어 있거나 높고 깊은 곳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물처럼, 공기처럼, 자갈처럼, 빨래처럼 숨어 있지 않고 드러나 있는 것이다. 일상생활 그대로가 진리이며 이 마음이 그대로 부처인 것이다.

다만 머뭇거리며 망설이며 생활의 하나하나에 마음이 머물러 집착을 키우다보면 진리는 먼 곳으로 아득히 사라지는 것이다.

행복과 자유는 느낌으로부터 비롯된다. 느낌이 밝은 빛이면 행복이요, 자유지만 느낌이 어두운 그림자 쪽으로 기울면 그 자체가 불행이요, 속박이기 때문이다. 사람살이의 8할은 느낌으로 끌어당김과 밀어냄의 연속으로 이루어진다. 사람살이의 큰 비중인 사랑놀이에 있어서도 느낌으로 불이 붙는 빨려듬과 빨아당김으로 시소게임을 즐기지만 대화의 단절과 이해의 결핍으로 상대 가슴에 방아쇠를 당기듯 멀어지는 것이다.

자, 글의 흐름을 다시 '참 앎'과 '참 봄'으로 되돌려 그 의미를 되살려보자. 막연한 추측으로 머리 굴린 생각으로 주어들은 상식으로 짜깁기식의 지식모음으로는 앞도 캄캄하고 뒤도 캄캄한 흑암(黑暗)의 무리일터.

간절심으로, 참으로 오롯한 간절심으로 생사(生死)마저 벗어버린 지극한 간절심으로 마음모아 '참 앎'과 '참 봄'을 이루어야 진정한 의미의 자유인,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진리를 알면 자유인이 되기 때문이다. 진리를 보면 행복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꾸미고 드러낼 것 없이, 챙기고 모으는 것 없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고맙고 감사하고 미안한, 기쁨 충만의 날마다 좋은 날이 되는 것이다.

참된 知·見은 깨달음의 완성
일상이 진리, 마음이 부처

발우 하나로 천가의 밥을 빌며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발우 하나로 천가(千家)의 밥을 빌며 외로운 몸 만 리를 떠도네. 푸른 눈, 알아주는 이 없으니 흰 구름에게 갈 길을 물어 볼까나?(一鉢千家飯 孤身萬里遊 靑目睹人少 問路白雲頭)"

읽어보면 애틋하게 가슴이 저려오는 시이다. 운수송(雲水頌)으로 알려진 이 시는 포대화상(布袋和尙)이 지은 시로 알려져 있다. 이 시가 그의 생애를 대변하는 한 폭의 그림이 그려지는 시이다. 운수행각을 하는 수도자의 애환이 엿보인다. 구름처럼 물처럼 정처 없이 떠돌며 유랑으로 일생을 보낸 그도 어쩌면 자신을 알아주는 지기(知己)가 없어 무척이나 외로웠는지 모른다. 구름에게 길을 묻는다는 마지막 구가 세상을 초월한 자의 자유보다 그리움의 향수가 묻어나는 것 같다.

포대화상은 정확한 생몰연대가 알려져 있지 않다. 양나라 때 명주(明州) 봉화(奉化)출신이었다는 것만 밝혀지고 성(姓)도 미상이라 하였다. 다만 〈전등록〉 27권에 의하면 그가 스스로 밝힌 그의 이름이 계차(契此)였다고 한다. 그는 기이한 언행으로 세상을 살아 숱한 일화를 남김 전설적인 인물로 부각되어 있다. 몸이 뚱뚱하고 배가 늘어져 이상한 모습을 하고 지팡이 끝에 자루를 메고 다니면서 무엇이던지 보면 달라고 해 그 속에 넣어 담고는 사방을 떠돌아 다녔다고 한다. 사람을 만나면 이상한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날씨나 길흉화복에 대한 것을 말해 정확히 맞추기도 했다.

일정한 주처(住處)가 없이 아무 데나 누워 자고 다니며 항상 긴 자루를 메고 다닌다고 해서 때의 사람들이 포대화상이라 불렀으며 또 장정자(長汀子)라 부르기도 했다고 한다. 가끔 이적을 보이기도 하였다.

눈 속에 누워도 눈에 옷이 젖지 않고 비가 오려고 하면 젖은 짚신을 신고서 길바닥을 뛰어 다니고, 심한 가뭄이 들 때는 굽 높은 나막신을 신고 저자의 다리 위에서 무릎을 세우고 자니, 사람들이 이것으로 날씨를 짐작했다.

〈전등록〉에는 그가 어떤 스님과 나눈 짤막한 대화가 소개되어 있다.

포대화상이 길모퉁이에 서 있는데 어떤 스님이 물었다.

"스님, 여기서 무엇을 하십니까?" "누구를 기다리오." "왔습니다. 왔어요." "그대는 그 사람이 아니오." "어떤 것이 그 사람입니까?" "내게 돈 한 푼 주시요."

포대가 노래를 불렀다. "오직 이 마음을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만이 부처이니 시방세계에 가장 영특한 물건일세. 가로 세로 묘한 작용 신통한 그놈이니, 온갖 것이 마음의 진실함만 못하다네.(只箇心心心是佛 十方世界最靈物 縱橫妙用可憐生 一切不如心眞實)"

"팔팔하고 자재하면서도 하는 바가 없으니, 한가롭고 한가로운 끝이 출가한 장부일세. 만약 눈앞의 참된 도를 본다고 해도 털끝만큼도 기특하게 여기지 않네.(騰騰自在無所爲 閑閑究竟丈夫兒 若睹目前眞大道 不見纖毫也大奇)"

"만법이 무엇이 남다르고 마음은 무엇이 다르기에, 어찌하여 수고롭게 경전의 뜻을 찾나? 심왕(心王)은 본래 스스로 분별이 끊겼으니, 지혜로운 이는 오직 배울 것 없는 경지만을 밝힌다네.(萬法何殊心何異 何勞更用尋經義 心王本自絶多知 智者只明無學地)"

"범부도 아니요 성인도 아니거니 다시 무엇이라 하리오. 억지로 분별하지 않으면 거룩한 정이 우뚝할 뿐, 값 매길 수 없는 마음구슬이 본래 원만하고 깨끗하거늘 범부는 다른 형상이라 하면서 망령되이 부질없이 부른다네.(非聖非凡復若乎 不强分別聖情孤 無價心珠本圓淨 凡是異相妄空呼)"

"사람이 능히 도를 펴면 도가 분명해지나니, 한량없이 맑고 높음을 도의 정(情)이라 부른다오. 비단을 끌고 고국(故國)의 길에 오르기만 한다면 어디서나 도의 소리 듣지 못할까 근심하지 말게나.(人能弘道道分明 無量淸高稱道情 携錦若登故國路 莫愁諸處不聞聲)"

포대화상이 입멸 할 때에 반석 위에 단정히 앉아서 게송을 읊었다. 그의 임종게(臨終偈)이다.

"미륵, 참된 미륵이여! 천백억으로 몸을 나누어 때마다 그때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건만 그때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더라.(彌勒眞彌勒 分身千百億 時時示時人 時人不自識)"

게송을 마치고 편안히 앉아 떠났다. 그런데 그 뒤 다른 고을 사람들이 여전히 포대(베자루)를 메고 다니는 것을 보았다 하였다. 이에 사부대중이 다투어 그의 형상을 그렸다.

미혹을 걷어내는 일, 참된 보시



진원 스님의 깨달음 찾는 〈금강경〉
㉒ 무위복승분

須菩提 如恒河中所有沙數 如是沙等恒河 於意云何. 是諸恒河沙 寧爲多不.
(수보리 여항하중소유사수 여시사등항아 어의운하. 시제항아사 영위다부.)
須菩提言 甚多 世尊. 但諸恒河 尙多無數 何況其沙.須菩提 我今實言告汝.若
(수보리언 심다 세존. 단제항아 상다무수 하항기사.수보리 아금실연고여.약)
有善男子 善女人 以七寶 滿爾所恒河沙數 三千大千世界 以用布施得福多不. 須
(유선남자 선여인 이칠보 만이소항하사수 삼천대천세계 이용보시득복다부. 수)
菩提言. 甚多 世尊.佛告. 須菩提 若善男子 善女人 於此經中 乃至 受持四句
(보리언. 심다 세존.불고. 수보리 약선남자 선여인 어차경중 내지 수지사구)
偈等 爲他人說 而此福德 勝前福德
(게등 위타인설 이차복덕 승전복덕)

"수보리야, 항하 가운데 있는 모래 수와 같이 그렇게 많은 항하가 있다면 네 생각에 어떻하냐. 이 모든 항하에 있는 모래가 얼마나 많겠느냐."

"매우 많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저 모든 항하만 하여도 수 없이 많사온데 하물며 그 모래이겠나이까."

"수보리야, 내 이제 너에게 진실한 말로 이르노니,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저 모든 항하강의 모래 수처럼 많은 삼천대천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서 널리 보시 했다면 그 복덕이 얼마나 많겠느냐."

수보리가 사뢰었다.

"매우 많사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 가운데네 글귀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남을 위해 말해 준다면 이 복덕이 앞에서 말한 복덕보다 더없이 뛰어나리라."

보시(布施)는 베풀다, 흩어 버리다라는 뜻으로 그 어느 곳에도 머물지 않고, 그 무엇도 소유하지 않고 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머물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것은 실재하지 않는 분별망념이기 때문에 모두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시해야 하는가?

보시하면 복덕을 받으므로 복덕을 받기위해 보시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싫어하는 일이고, 복덕은 좋아하는 일입니다. 지금 싫어하기 때문에 좋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혹하기 때문에 깨달으려고 하는 것으로 미혹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도 없으며, 고통스러우니 편안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편안하다는 것은 고통으로 인한 것이고, 지금 깨달았다는 것은 미혹으로 인한 것이며, 지금 좋아하는 것은 싫어함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로 아는 것이 참된 보시입니다.

그러므로 항하강의 모래 수와 같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채운 칠보를 보시한 복덕이 참으로 많지만 이 복덕은 무너지는 허망한 과보의 복덕일 뿐입니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 가운데네 글귀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남을 위해 말해 준다면 이 복덕이 앞에서 말한 복덕보다 더없이 뛰어나리라."

만약 어떤 사람이 금강경 가운데 사구게를 받아 지니고 남을 위해 말해 준다면, 그는 반야바라밀의 뜻을 알고 참된 보시를 하는 사람이므로 이 사람의 복덕은, 삼천대천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서 보시한 허망한 과보의 복덕보다 더없이 뛰어남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개원 12주년 기념
종정큰스님 초청법회 안내

저잣거리 수행전법도량의 기치를 걸고 함께 수행전법해온 도량 열린선원 대중들의
바른 법에 관한 믿음을 더하기 위해 한국불교의 최고 어른이신 태고총림선암사 방장 겸
태고종 종정 혜초 큰스님초청법회를 봉행하오니 꼭 오시어 드물고 좋은 친견의 기회를 가지기 바랍니다.
더하여 쉽고 재미있고 유익한 앎과 깨달음의 불교를 위해 부처님 가르침과 법회(불공, 천도)의식과
찬불가를 함께 담은 "가피수행 불교성전"의 출판법회도 함께 합니다.
가족 친지들과 함께 오십시오.

개원 12주년 기념 종정큰스님 초청 가피수행불교성전 출판법회

- 날 짜 : 6월 11일(일) 오전 10시 30분 ~ 오후 1시
- 식 순 : · 종정큰스님 친견 / · 불교성전 봉헌
  · 종정 혜초큰스님설법 / · 축사
  · 축하공연(박희진, 박경희, 성수현, 노은주, 가람합창단)

불교성전 출판은 공덕을 쌓는 중요한 불사입니다. 출판해서 열린선원 뿐 아니라
다른 절 스님들과 불자들께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설판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설판은 법회비 전부 또는 일부를 내는 것임)

■ 문의 : ☎ 02-386-4755 (지하철 6호선, 구산역 4번 출구 역촌중앙시장 2층)

열린선원선원장 무상법현 합장

제 96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6월 30일 오후 5시
◆ 강의일시 :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